

새 세기 산업혁명을 수행하는것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한 전략적로선

황 해 정

오늘 우리 혁명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해나가는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올바른 전략적로선을 틀어쥐고나갈 때에만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시대와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새 세기 산업혁명을 수행하는것을 강성국가건설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전략적로선의 하나로 제시하여 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성국가입니다.》(《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단행본 12페이지)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의 리상과 념원이 실현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새 세기 산업혁명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과 함께 새 세기 산업혁명을 수행하는것은 현시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다.

새 세기 산업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전략적로선은 사상중시, 총대중시와 함께 과학기술중시가 강성국가건설의 3대기둥의 하나라는 올바른 분석에 기초하여 제시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로선이다.

새 세기 산업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파

학기술혁명이다.

새 세기 산업혁명을 다그쳐나가는 여기에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당의 구상과 의도를 앞당겨 실현할수 있는 근본담보가 있다.

새 세기 산업혁명을 수행하는것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한 전략적로선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지식경제시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중요한 담보로 되기때문이다.

현시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전면에 나서는것은 경제강국건설이다.

경제강국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과 함께 강성국가의 기본징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경제강국은 나라의 부강번영을 물질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고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물질문화생활을 원만히 보장해줄수 있는 위력한 국가경제력을 가진 나라이다.

오늘 세계는 경제의 지식화으로 전환되고있으며 우리앞에는 나라의 경제를 지식의 힘으로 장성하는 지식경제로 일신시켜야 할 시대적과업이 나서고있다.

현시기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커다란 변혁을 일으키고있다.

과학기술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강자가 되고 과학기술분야에서 뒤떨어지면 약자로 밀려나는것이 현시대의 중요한 특징이다.

사회경제생활에서 과학과 기술의 역할이 비상이 높아지고있는 오늘 우리 나라를 세계에 당당히 앞서나가는 경제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자면 새 세기 산업혁명을 수행하여야 한다.

새 세기 산업혁명은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그에 기초하여 경제의 모든 분야를 일신시킴으로써 경제분야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고 인민대중의 자주적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기본열쇠는 바로 새 세기 산업혁명을 다그치는데 있다.

그런것만큼 우리 나라를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경제강국, 지식경제강국으로 일떠세우기 위해서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강국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와 자기의 힘과 기술, 자기의 자원에 의거하여 일떠서는 나라이다.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은 강력한 국가경제력을 특징짓는 첫째가는 징표이다. 비록 령토가 크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라고 하여도 남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 세계적인 경제과동에 흔들리는 경제를 가진 나라는 강력한 국가경제력을 가졌다고 말할수 없다.

더우기 제국주의자들이 경제적예속을 정치적예속의 수단으로 삼고 다른 나라를 압살하기 위해 경제적압력과 제재책동을 더욱 강화하고있는 조건에서 자립성과 주체성을 떠나서 경제의 발전과 위력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자립적민족경제토대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자기의 힘과 기술, 자기의 자원으로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경제강국을 건설하는 길은 새 세기 산업혁명을 수행하는것이다.

새 세기 산업혁명의 열풍속에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씨를 뿌리고 가꾸어오시여 우리 인민들에게 물려주신 고귀한 유산이며 경제강국건설의 커다란 밑천인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된다.

오늘 새 세기 산업혁명에 의하여 우리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은 더욱더 강화되고있으며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이련이어 창조되고있다.

사회주의경제강국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이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현대화, 정보화된 나라이다.

현시대에는 과학기술발전수준이 나라의 경제력을 평가하는 기본척도로 된다.

오늘날 경제의 위력과 그 발전수준은 현대화, 정보화의 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런것만큼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고 나라의 경제를 현대화, 정보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과학기술이자 생산이고 생산이자 과학기술이라는것은 정보산업시대의 원리이다. 과학기술이 생산과 밀접히 결합되어야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수단으로 될수 있으며 강성국가건설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할수 있다.

나라의 경제를 현대화, 정보화하는것은 새 세기의 절박한 요구이다. 최첨단기술에 기초하여 나라의 경제를 현대화, 정보화하여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생산을 높은 속도로 장성시킬수 있으며 날로 높아지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새 세기 산업혁명은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생산과 경영활동을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현대화, 정보화함으로써 나라의 경제를 지식의 힘으로 발전하는 경제로 일신시켜나가는 거창한 변혁이다.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속에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과학기술을 떠나서는 생산을 발전시킬수 없고 경제건설에서 한걸음

도 전진할수 없다는 관점과 립장이 철저히 확립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최첨단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실현해나가게 된다.

오늘 새 세기 산업혁명은 최첨단CNC공작기계생산에서 비약적발전을 이룩하고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풀어나가는것이 하나의 기풍으로 되게 하고있다.

새 세기 산업혁명에 의하여 설비와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가 적극 실현되여 나가고있으며 모든 생산과 경영활동을 과학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하는 사업질서와 규률이 강하게 세워지고 제도화되여가고있다.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발은 자기 땅에 붙이고 눈은 세계를 내다보면서 배울것은 배우고 받아들일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선진적인것은 배우고 좋은것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 더 훌륭하게 발전시키면 그것은 남의것이 아니라 우리의것으로 된다.

우리가 자주적립장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교류도 발전시키며 다른 나라의 앞선 기술도 받아들여 우리의것으로 만들고 세계를 굽어보며 우리의 지적, 물질적재부를 끊임없이 늘여나가기 위한 방도는 새 세기 산업혁명을 수행하는데 있다.

새 세기 산업혁명을 수행하는것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한 전략적로선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정치사상적, 군사적위력을 더욱 강화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기술적담보로 되기때문이다.

새 세기 산업혁명을 수행하는것은 단순히 강력한 국가경제력을 마련하는데만 그 의의가 있는것이 아니다.

새 세기 산업혁명을 수행하는것은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정치사상적, 군사적위력을 강화하는데도 적극 이바지하게 된다.

새 세기 산업혁명을 수행하는것은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정치사상적위력은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첫째가는 국력이다.

방대한 인구와 령토, 위력한 군사경제력을 가지고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정치사상적위력에 의하여 담보되지 못하는 나라는 강국이라고 말할수 없다.

사회주의강성국가는 무적의 군력과 강력한 국가경제력에 앞서 정치사상적위력이 최고의 높이에 올라선 나라이다.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정치사상적위력은 령도자를 중심으로 천만군민이 일심단결을 빛나게 실현하고 그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며 자기 나라와 인민의 자주권과 존엄을 철저히 옹호하고 국제무대에서 정치적자주성을 당당히 행사해 나가는데서 표현된다.

사회주의강성국가의 공고성과 불패성을 담보하는 정치사상적위력은 다름아닌 일심단결의 위력이다.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은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최강의 무기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위력한 추진력이다.

일심단결은 혁명의 천하지대본이고 억만금의 재부에도 비길수 없으며 그 위력은 원자탄보다 더 위력하다.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일심단결의 기반우에서 건설되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백승을 떨치는 불패의 강국이다. 그런것만큼 전체 인민이 령도자를 중심으로 그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와 승고한 도덕의리로 굳게 결합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 위해서는 새 세기 산업혁명을 다그쳐 경제강국을 건설하여야 한다. 그래야 인민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줄수 있다.

새 세기 산업혁명은 단순히 로동생산능

를 높이고 생산을 늘이는데만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다.

지난 시기의 산업혁명이 사람의 육체로동을 대신하는 기계를 생산에 도입하여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혁명이였다면 새 세기 산업혁명은 사람의 육체로동은 물론 정신로동마저도 대신하는 최첨단정보설비들을 받아들여 생산공정을 무인화함으로써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경제적인변혁이다.

인민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과 물질문화생활을 통하여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생활적으로 절감하게 될 때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게 되며 사회주의를 자기들의 생명으로, 생활로 삼고 그것을 고수하고 빛내어나가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해나갈수 있다.

새 세기 산업혁명을 수행하는것은 사회주의강성국가의 군사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오늘 반제반미투쟁은 정치와 군사, 경제와 사상문화의 모든 전선에서 치렬하게 벌어지지만 여기에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본전선은 반제군사전선이다.

자주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군사적위력의 중요성과 의의는 더욱더 높아지고있으며 군사전선에서 적을 제압하면 다른 모든 전선에서도 승리할수 있다.

사회주의강성국가의 군사적위력은 정치사상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혁명군대와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국방

공업을 가지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빛나게 실현하여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나가는데서 표현된다.

우리 시대, 우리 혁명에서는 군사가 첫째이고 국방공업이 선차적이며 국방공업을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우리에게 사활적인 문제로 나선다. 그러므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방공업을 최우선시하여야 하며 국방공업을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튼튼히 담보할수 있는 위력한 국방공업으로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국방공업발전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 설비들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제때에 원만히 생산보장하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싸움준비를 완성해나가기 위해서는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국방공업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새 세기 산업혁명은 제국주의자들의 《첨단기술무기》를 우리 식의 위력한 무장장비로 단호히 짓뭇개버릴수 있게 국방공업의 현대화, 정보화를 더욱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게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심장으로 받들어 새 세기 산업혁명을 수행하는것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한 전략적로선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조국땅우에 부강번영하는 불패의 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